

전국 최대규모 수완 하나로 클럽 개점 말뚝

슈퍼조합 “농협마저 동네상권 죽이기 가세하나” 집단행동

중기청선 비영리법인으로 돼있어 사업조정신청 대상 안돼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하 슈퍼조합)이 광주 수완지구에 건립중인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신청이 반려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일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농산물 유통단체를 줄이고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건립되고, 운영주체인 농협유통도 농협협동조합법에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업조정제도의 근거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조정 적용 대상은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

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산물유통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슈퍼조합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들어설 하나로클럽은 ‘농수축산물 직거래’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공식품 등 공산품까지 취급해 사실상 대형마트와 다를바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연면적 4만 5768.6㎡에, 영업면적은 1만6072.7㎡다. 이중 도매매장은 2766.9㎡,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식재료 매장은 3117.4㎡에 불과하지만 하나로클럽의 면적은 8234.7㎡로 전국 최대 규모다.

특히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등 공산품까지 취급품목도 6만여 가지가 넘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슈퍼조합 등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로클럽까지 가세해 영업 경쟁을 벌인다면 동네 상권은 몰락하게 된다”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상대로 개점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단체행동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농협 관계자는 “취급 상품의 60%는 농수축산물로 사실상 직거래 장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하나로클럽의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되기 때문에 일반 대형마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개점할 예정이었던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시공사의 부도도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불법·고액과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학원 등

국세청이 대학입시철을 맞아 탈세 혐의가 있는 불법·고액 논술학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3일 학원의 제3의 장소에서의 불법적인 논술강의,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 대입 수능을 전후해 단기 논술특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학원 이외 다른 장소 또

는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 6곳이 포함됐다. 또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해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수입금액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 학원 3곳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결과에 따라 고액·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정밀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불법고액과외와 의 전쟁에 나선 것은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시학원이나 스타강사들이 불법·탈법적인 고액과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소득신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과세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태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위원회 1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센트럴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위원회'를 열고 지역 소기업·중소상인들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를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롯데슈퍼 품앗이·치평·우산·동림점 대상

광주슈퍼조합, 사업조정 신청키로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 가맹점 형태로 개점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13일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 따르면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 롯데슈퍼 품앗이·치평·우산·동림점 4곳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SSM 적용에만 해당했던 사업조정제도가 대기업이 운영하

는 체인점포에도 적용된다는 방침이다.

롯데슈퍼 품앗이점과 치평점의 경우 지난 3월 직영점 형태로 입점을 준비하던 중 슈퍼조합의 사업조정신청으로 사업개시 일지정지 권고가 내려져 가맹점 형태로 전환해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롯데슈퍼 품앗이·치평·우산·동림점은 인근 중소기업인들이 현박생성을 펼치며 집기류 반입을 막고 있어 개점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농공상 융합형기술 20억원 지원

농수산물 신제품 개발 사업

중소기업청은 농공상(農工商) 융합형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한 14개 과제를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 사업은 중기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은 사업 과제도 선정되면 1건당 총 사업비의 75%까지 최대 2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

정이다. 지원 대상 과제는 중소기업이 주관하고 농어업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형과 농어업법인이 홀로 진행하는 단독형이 있다.

중기청은 오는 16일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사업 신청과 계획서 작성, 선정 평가 등에 관한 문의는 지방중기청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40)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中企 수출 급격 감소

2003년 53%서 2008년 38%로 하락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중 이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53.1%에서 2008년 38.8%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직접 외국에 수출하는 직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42.2%에서 30.9%로 줄었고 대기업에 납품해 수출하는 간접수출 비중도 10.9%에서 7.9%로 동반하락했다.

연간 수출액이 10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000년 2.8%에서 지난해 1.5%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연간 수출액 100만~1000만 달러 규모인 중견기업 역시 같은 기간 11.3%에서 6.7%로 크게 떨어졌다.

2000년 기준 수출액 100만 달러 이

하였던 중소기업 2만4000여개의 수출 실적을 추적한 결과 지난해에도 이 정도의 수출실적을 유지하는 7411개에 그쳐 생존율이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으로 수출액이 늘어난 곳은 1900여 개로 7.8%밖에 되지 않았다.

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대외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해외 시장을 잠식당하고 고급제품군에 선출하는 간접수출 비중이 미치지 못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할 때 중소기업의 수출 유발 효과가 대기업보다 매우 적은 데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대기업형 품목이 주도하면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하락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무역협회는 밝혔다.

연합뉴스

수출 제조업체 절반

“내년에도 실적 호조”

수출기업 대다수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수출 제조업체 51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49.8%가 내년도 수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39.4%는 ‘수출이 호조였던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해 내년 수출이 올해 수준 또는 올해 이상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89.2%로 집계됐다.

수출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답한 곳은 11.0%였다.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로는 수출 대상국의 경기회복, 품질·이미지 등 비(非) 가격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에서 경쟁 강도 약화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

대학생 ‘삼성’ 1위 꼽아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그룹 1위에 삼성이 올랐다. 13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이지서베이와 함께 전국 대학생 1084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5.0%가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으로 삼성을 꼽았다.

이어 CJ(8.5%), SK(7.3%), 포스코(7.2%), LG(6.5%)가 뒤를 이었고, 롯데(4.8%)와 신세계(4.3%), 금호아시아나(3.9%), KT(3.4%), 현대(3.2%)도 10위권에 들었다.

삼성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투명한 보상제도(23.5%)를 들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 1,996.59 (+10.45)

코스닥지수
▲ 513.41 (+4.21)

금리 (국고채 3년)
▲ 3.26% (+0.12)

원·달러 환율
▲ 1,146.00원 (+2.2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2010년 국가직/ 지방직 수탁출제에 따른 수험전략/ 채용인원현황/ 바뀌는 시험정보/ 조기합격을 위한 수험대책/ 국가직, 지방직 시험일정 및 거주지 요건정리

공무원 합격실명회

2010년 12월 27일(월) 14:30~ (사전예약접수 중)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증정/ 고급노트증정 종합반교재 5권 20만원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타 학원 공무원 합격설명회 다 들어보시고, 학원선택은 반드시 비교후 소문들고 선택하십시오! 고시학원의 대세는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합격은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김영편** 입학원 227-8088

개강 1월 3일